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0호

Tuesday, June 11, 2024 A



‘천지창조’ 음악회... 하나님 크신 위엄 보였다

벤엘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음악으로 해석한 하이든의 고전 중 고전 ‘천지창조’, 엘리엇시티 소재 벤엘교회(백신종 담임목사)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며 펼친 음악회는 ‘천지창조’의 서사적 흐름을 제대로 보일 정도로 100여 명의 연합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표현, 기교가 정교하게 묻어난 무대였다.

지휘자 진철민 타우슨 대학 성악과 교수가 이끈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소프라노 김연정, 테너 김충구, 바리톤 문태은, 그리고 벤엘교회 연합 찬양단이 참여한 이번 연주회는 최근

워싱턴 지역에서 침체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되살릴만한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공연에서 천사 가브리엘(소프라노 김연정)과 우리엘(테너 김충구), 라파엘(바리톤 문태은) 등은 성숙한 기량으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벤엘교회가 사랑하는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연합 찬양단의 합창은 천지창조 과정의 환희와 웅장함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음악회는 6일간 이어진 장엄한 천지창조 역사를 다루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째날부터 물과 땅, 푸른 초원, 창공의 별,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찬양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출연진들의 수준높은 발성과 순수한 음색은 지휘자 진철민 교수와 최연소 오케스트라 단원 이안 김 군

내내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이날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단원 이안 김(13세) 군의 더블베이스 연주는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백신종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 45년의 벤엘교회 역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벤엘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벤엘교회는 1979년 가정예배로 출발해 김상복 1대 담임목사 취임을 시작으로 2015년 6대 백신종 목사까지 이어지며 워싱턴 지역 대표 교회 중 한곳으로 자리잡았다.

김윤미 기자



‘북중 밀월 징표’ 김정은 발자국, 중국서 사라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디펜 방추이다오 해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최근 두 정상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던 산책로의 동판이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검은색 아스콘이 덮여 있다. [신화=연합뉴스, 대북 소식통]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국서 183일 이상 체류자 내달 1일까지 한국에 신고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

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 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 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인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낙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엇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엇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H-Mart 내
301.792.5615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신고하고 휴진하라” 정부 진료명령 강공

병의원 휴진 땀 13일까지 신고명령
신고 안하고 쉬는 기관 30% 넘으면
최대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으로 수습 국면이 기대됐지만, 의료계-정부(의정) 갈등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앞서 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의사 파업 일지

<p>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약분업 시행, 의약협 합의안 도출</p>	<p>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의협, 포괄수가제 수용</p>	<p>2014년 원격의료 반대 정부, 원격의료 철회</p>	<p>2020년~ 의대 증원</p>	<p>2020년 7월 23일 정부, 10년간 4000명 증원 발표 8월 14일 전국 의사 제1차 총파업 21-23일 인턴-레지던트 무기한 파업 24일 전임의 순차적 무기한 파업 26-28일 전국 의사 제2차 총파업 27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31일 정부, 즉시 임주일 연기 결정 9월 4일 민주당(여당)-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p>	<p>2024년 2월 6일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20일 전공의 사직 4월 19일 정부, 대학 자율로 증원인원 50~100% 조정안 수용 26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주1회 휴진 결정 6월 17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전면 휴진 예고 18일 의협,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예고</p>
---	---	---	--------------------------------	---	--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 달라”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11일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지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도 18일 하루 휴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동네 병·의원(개원의) 3만 5000여 곳에 내려졌다.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서울 전인 13

일(15~16일 주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날 한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발령한 진료 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서에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귀 의료기관은 6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혀 있다. 또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휴진일 3일 전인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해라”라고 적혀 있다.

휴진신고 명령은 관내 휴진율을 미리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이후 휴진 전날(17일)까지는 등기우편으

로, 당일(18일)에는 오전 9시에 문자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송달에 문제가 없도록 중복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일 오전 휴진 여부를 우선으로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는 등 휴진 의심 기관이 시·군·구별로 30%를 넘으면 이후에 해당 기관으로 채증을 나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

라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는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단체(의협)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단체장) 등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노환구 의협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환자에게 불인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 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 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동 가담자에게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여서 (의사 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황승언 기자

대북 확산기 일단 멈춤...“북한이 수위 낮추자 숨 고르기”

북 3·4차 살포 풍선엔 폐지 담아야
정부, 강대강만 아닌 절제 대응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비례적·단계적 대응 원칙을 정한 정부가 10일 대북 확산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9~10일에도 풍선을 살포하기는 했지만, 풍선의 내용물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 등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의 원칙을 ‘강대강’으로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의 여지가 보일 때는 절제해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대북 확산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오후쯤 가닥이 잡혔다. 이날 방송을 송출하지 않

게 된 데는 사태가 악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분위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 살포 때처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피해 유발에 집중하지 않는 기류가 읽히는 만큼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뒤 후속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절제된 대응으로 북한에 신호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며 “강대강 대치가 북한의 행보를 오히려 더 주목받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계속하면서 미묘하게나마 수위를 조절한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지난 8~9일(3차)과 9~10일(4차)에 살포한 오물풍선에는 폐지와 비닐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

됐다. 앞서 지난달 28~29일(1차)과 이달 1~2일(2차) 오물풍선엔 혐오감을 자극하는 담배꽂이나 거름이 담겼다. 당시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타이머까지 부착해 피해를 키우려 했다.

풍선 개수도 1·2차 살포 때 모두 약 1000개에서 3차 330여 개, 4차 310여 개로 줄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내세운 비례성의 원칙을 북한 역시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전날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읽힌다.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 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 “우리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우리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



10일 경기도 파주시 점검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식 확산기로 추정되는 차량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지난 9일 인천시 강화군 화점면에서 발견된 오물풍선 잔해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 [뉴스1, 사진 인천소방본부]

다” 등 구구절절 추가 풍선 살포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빼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산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전 김여정 담화와 비교해도 표현이 정제되고 수위가 낮아진 듯하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산기가 여전히 유효한 대응 카드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방송을 잠시 멈췄지만,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면 주저 없이 재개한다”고 말했다. 양육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의 피로도를 높이는 ‘소진 전략’에 대북 확산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일(수) 83-65 ☁	15일(토) 85-67 ☀
13일(목) 90-73 ☀	16일(일) 85-68 ☀
14일(금) 93-70 ☀	17일(월) 90-71 ☀

6월 11일(화) 77~61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알링턴 주택 폭발사건, 제임스 유 씨 스스로 저질러

SPECIAL STORY

지난해 12월 발생 '전국 주목' 연방당국 "고의적 방화 결론" 유씨가 직접 가솔린 등에 불 붙여



던 가솔린 35갤론이 모두 주택 안팎에 뿌려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씨는 당시 폭발로 인해 사망했다.

작년 12월4일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주택 폭발 사건의 원인은 집주인이었던 한인 제임스 유(당시 56·사진)의 고의적인 방화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과 연방알콜담배무기폭발물국(ATF)는 사건 발생 후 폭발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5갤론짜리 가스통 3개와 25갤론짜리 가스통 1개를 발견했다. 이러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도구는 규명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이 가스통에 담겨 있던

유씨가 사건 발생 수개월 전 다량의 음식 조리용 차콜 숯불과 차콜 라이터 용액 등을 구입했다고 증언했는데, 당국에서는 폭발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내부에서는 9밀리미터 권총 한정, 샷건 한정, 다수의 총탄 그리고 다수의 총탄과 조명탄 발사기 등이 발견됐다.

당국에서는 애초 유씨가 3시간40분 정도 바리케이트 상황을 유지했으며 창문을 통해 옆집에 수십 차례 조명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특공대는 유씨를 제압하기 위해 체류터 스프



[사진=지구 트위터]캡처

레이를 모두 16회 발사했는데, 이는 화재원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국에서 공개한 경찰의 신체부착 카메라 동영상에는 이러한 장면이 모

두 담겨져 있었다. 유씨는 알콜 중독과 정신병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법원 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폭발사건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으며, 알콜 중독으로 고통받아왔다.

유씨가 작성한 법원 소장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의하면, 2003년 국제통신회사 '글로벌 크로싱'의 보안 책임자로 일하다가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유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한 대선 후보 자문으로 일했으며 어머니는 미국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주로 한국관련 소식을 담당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지부에 수년 동안 수시로 사기를 당했다며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의 제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다. 유씨의 전부인 스테파니 유씨는

2017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승소했다. 위자료 지급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법원은 2020년 10월말 전부인 유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유씨가 소유한 주택의 매매를 명령했다.

버지니아 등기국 기록에 의하면 유씨는 2021년 이혼소송 결과 판사의 명령에 의해 버지니아 맥클린의 주택을 100만달러에 판매했다. 유씨는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자신의 소송을 주관했던 판사와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의사, 전부인, 여동생(혹은 누나)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였다.

유씨의 전부인은 2015년 11월 유씨를 뉴욕 로체스터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유씨의 소장에는 자신이 10학년때부터 평생동안 과도하게 음주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김육재 기자

백악관 앞, 최대규모 '반전 시위'

2천여명 참여 텐트 장기 농성 들어가



지난 주말 백악관 앞에서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같은 시위 규모는 개전 이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시위 중에서 가장 컸다.

시위대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종전을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즐겨하는 쿠피야 두건을 착용했다.

또한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빨간 옷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이 넘지말아야 했던 가자 지구 국경선을 침해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시위에는 질 스타인 녹색당 대선후보와 크라우디아 드라 크루즈 사회당 대선후보도 참여했다. 시위대는 "바이든은 잘 들어라, 우리가 바로 당신이 숨길 수 없는 레드 라인이다"고 외쳤다.

시위가 끝난 후에는 백악관 남쪽 일립스 공원에 텐트를 치고 농성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시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지난 4-5월 대학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로, 방학을 맞아 귀향한 후 시위 거점을 워싱턴DC 백악관 앞으로 옮겼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으나, 조속히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육재 기자



버지니아 43번째 주립공원 개장

컬페퍼 배틀필드 공원 2200에이커 부지

버지니아의 43번째 주립공원인 컬페퍼 배틀필드 주립공원(9465 General Winder Rd, Rapidan, VA)이 개장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오는 7월1일 일반인 개방을 앞두고 먼저 열린 개장식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는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영감을 제

공한다"면서 "이곳은 훌륭한 자연 자원의 보고로서 교육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컬페퍼 배틀필드 주립공원은 현재 1천 에이커 부지 위에 자리잡았으나 2027년 12월까지 총 2200에이커로 확장될 예정이다.

아메리칸 배틀필드 트러스트와 브랜디 스테이션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정부가 이양받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공원 내에 위치한 시더 마우틴 전

쟁터는 남북전쟁 당시인 1862년 8월 9일 피아간의 전투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다.

또한 1863년 6월9일은 북군과 남군 기마부대가 맞붙었던 곳으로, 미국대륙 본토 역사상 가장 큰 기병대전투가 벌어졌었다.

컬페퍼 배틀필드 주립공원은 워싱턴 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주행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박세용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옹호하세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무보험 한인 비율 아시아 중 최고 7.8%가 건강보험 없어 자영업자 비중 높은 영향

‘오바마케어’ 시행 후 소수계의 무보험자 비율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인 중 보험이 없는 이들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무보험자 비율은 7.8%였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베트남인(7.2%), 필리핀인(5.0%), 중국인(4.9%), 인도인(3.8%), 일본인(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 그룹 중에서는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 전역 아시아·태평양계(AANHPI) 무보험자 비율은 6.2%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인과 베트남계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 무보험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연방 센서스국의 ‘2021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서도 전국 7%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시아 중에서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높은 편이긴 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2010년 26.6%에 달했지만, 2015년 11.7%, 2020년 9.0%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 14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했다.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바마케어가 장기적으로 보험 사각지대 그룹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한미박물관 기금 1100만불 사용내용 공개 촉구

시민후원회 2차 공청회 개최 주검 찰과 IRS에 고발 등 논의 일부 반대 고발 결정 투표 못해 공동행동 연합회 구성 계획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후원회’가 2차 공청회를 열고 한미박물관 이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주최 측은 한미박물관 이사회 측이 그동안 모금한 건립기금 약 1100만 달러의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 후원회(이하 한미박물관 건립 후원회)는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차 공청회에는 스킨렛 엄 전 LA한인회장, 권영신 전 대한인국민회 이사장, 마지프 시디키 방글라데시계 커뮤니티협회 회장 등 전·현직 단체장과 한인 1~2세 약 40명이 참석했다. 반면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한 한미박물관 이



한미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후원회 측 크리스토퍼 이(왼쪽) 건축가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 캐런 배스 LA시장,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실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한미박물관 건립사업 진행상황, 시민후원회 대응방안, 참석자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을 주최한 크리스토퍼 이 건축가는 “한미박물관 건립 사업이 10년을 넘었지만, 건립기금으로 모은 11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기부를 하

신 분 중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다. 장재민 이사장과 이사회 측이 한인사회에 재정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후원회는 대응방안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 및 연방국세청(IRS) 고발 등 법적대응, 새 이사회 구성, 한인사회 유물 행방 및 보관 방법’ 등을 논의했다. 반면 주최 측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미박물관 이사회 고발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참석자가 반대

해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스칼렛 엄 전 LA한인회장은 “우리 한인사회를 위한 박물관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텐트를 쳐서라도 박물관 건립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박물관 건립사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2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재민(한국일보) 회장이 동포사회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공청회를 마친 크리스토퍼 이 건축가는 공동행동을 위한 연합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축가는 “한인 전·현직 단체장이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기 위해 모임을 열기로 했다”며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재구성도 장재민 이사장의 리더십 등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우선 연방국세청이 한미박물관 이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밝히도록 법적 고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형재 기자

샌프란에 코리아타운 생긴다

포스트 스트리트 중심 한인 상점들 속속 입점

샌프란시스코에 한인타운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매체인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6일 LA와 달리 한인 인구도 적고 거주지도 멀리 퍼져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 한인타운이 조성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있다고 전했다.

포스트가(Post St.)를 중심으로 필모어(Fillmore)와 라구나(Laguna) 거리 사이에는 야키니큐 코리아나 BBQ를 비롯해 지나 베이커리, 대호 갈비찜&갈비탕, 비크 BBQ, 두부, 산왕레

스토랑, 딥플스, 파고다, 서울가든 등 식당당과 바, 제과점, 미용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또 필모어 스트리트에서 남쪽 방면으로 2~3블록 걸어가면 만나는 기어리 불러바드에는 우리그룹이 운영하는 우리마켓과 케이터링 업체 ‘키친우리’가 있고 고급 한식당 반상 외에 임페리얼 헬스 스파, 선물센터인 퀸스가정용품, 필모어 당구장이 보인다.

이 밖에도 스킨케어, 노래방, 법률사무소, 개인 병원 등이 이 구역에서 한국어 간판을 내걸고 운영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기사에서 “한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포스



왼쪽은 한인타운에 들어선 당구장의 한공간. 오른쪽은 코리아타운 식당 ‘대호’의 내부 모습. [Jason Henry for The San Francisco Standard]

트. 필모어, 기어리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대부분이라 이미 한인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코리아타운’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

년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만2018명이다.

장연화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한인 은행장 재계약 시즌 ... 연임 여부에 촉각

4명 내년 상반기에 임기 만료
오픈뱅크 민 김 행장 거취 주목
대다수 연임 가능성에 더 무게
차세대 리더 양성 미흡 지적도

일부 행장의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한인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인 은행 4명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 은행은 한미은행,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4곳이다.

가장 먼저 계약이 만료되는 건 김동일 US메트로뱅크 행장이다. 그의 임기는 올해 10월 말까지다. <표 참조>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 역시 올해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상반기에 행장 임기가 끝나는 은행들도 있다. 한미은행 바니 이 행장은 2월 28일, CBB뱅크의 제임스 흥 행장은 4월 19일이 임기만료일이다. 2023년 10월과 12월, 내년 2월과 4월로 두달 간격으로 행장 4



케빈 김 행장 바니 이 행장 헨리 김 행장 민 김 행장 제임스 흥 행장 김동일 행장

한인은행 행장 임기

은행명	행장명	임기
뱅크오브호프	케빈 김	2027년 03월 31일 (1년 자동 연장 2회)
한미은행	바니 이	2025년 02월 28일
PCB	헨리 김	2026년 12월 31일
오픈뱅크	민 김	2024년 12월 31일
CBB	제임스 흥	2025년 04월 19일
US메트로	김동일	2024년 10월 31일

자료: 각 은행

명의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한인 은행권은 이달 26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US메트로뱅크의 김동일 행장의 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은행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행을 이끌어 자산 규모 10억 달러가 넘는 은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재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나는 오픈뱅크의 민 김 행장의 재계약 여부는 최근 한인 은행권의 핫이슈다.

2020년 4년 연임을 확정할 당시 인터뷰를 통해 임기가 만료되면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

만 차기 행장 선임에 난항을 겪는다면 한 번 더 연임하거나 일정 기간 행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신임 행장이 내부 승진이나 또는 외부 인사 영입이냐에 따라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관심이 더 쏠린다. 오픈뱅크 이사회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은행권은 한미은행의 바니 이 행장과 CBB뱅크의 제임스 흥 행장도 취임 후 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해왔다는 점에서 재계약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은행권에서 행장 연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통상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4개월 전부터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만료일 한 달에서 두 달 전에는 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논의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이사회 뜻이 모여지고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한 두 달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과 같이 은행권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은행 운영을 위해 임원진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행장 연임 결정을 빨리 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은행권은 이사회가 경기 하락과 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올해와 내년은 행장 교체 시기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은행 관계자들은 당면과제가 ▶자산 건전성 확보 ▶부실 관리 강화 ▶기존 영업 네트워크 유지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 행장 후보군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한인 은행들이 한인 사회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인사회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인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즉, 한인 은행의 리더들이 후진 양성에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한인은행권은 지금이라도 차기 행장 리더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희 기자

설문조사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돈 쌓인다

용돈벌이 - 온라인 설문조사

가입에 1분 바로 시작 가능해
포인트 모아 기프트 카드 수령
수입 적어도 가볍게 하기 좋아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부터 GPT 사이트는 존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이트를 GPT(Get Paid To)라고 부른다. GPT 사이트에서는 광고 시청부터 회원가입까지 다양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전문 GPT 웹사이트에서 ‘용돈벌이’를 해보기로 했다. 가입은 무척 쉬웠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1분 안에 가능하다. 가입하자마자 200포인트의 웰컴 보너스를 준다. 이는 현금으로 2달러에 해당한다. 수입, 인종, 나이 등을 입력하고 나면 이에 맞춰서 최적화된 설문조사를 쭉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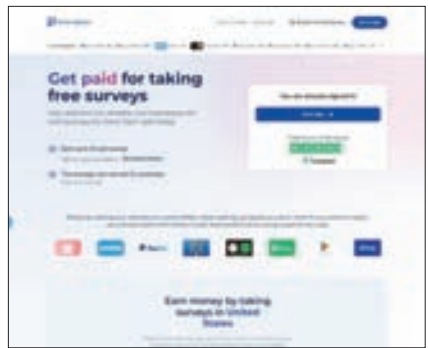
온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설문조사가 있다. 설문마다 주는 포인트가 다르다. 포인트가 많은 설문조사를 클릭했다. 첫 몇 개 문제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간단한 퀴즈다. 사칙연산이나 영어단어에 대한 것.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검증하려는 의도 같다.

대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질문은 없다. 첫 번째 설문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평소 어떤 건강식품을 주로 먹는지부터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 간단한 질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간마다 질문이 아니라 간단한 퀴즈가 포함돼 있다는 것. 설문을 빨리 끝내고 보상을 받기 위해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누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5분 걸릴 거라고 쓰여 있던 설문조사는 10분이 안 돼 끝났다. 206포인트가 계정에 쌓인 것을 확인했다.

다음 설문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지지하는 정당부터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10분 정도가 걸렸고 70포인트를 벌었다. 질문 자체가 흥미로워 정치성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기회였다.

박차를 가해서 여러 설문에 참여했지만 포인트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 설문조사 시작 전에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이때 설문조사가 원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제출에서 얻는 수입은 시간 대비 효율은 떨어지지만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 프라임 오피니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참여를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설문조사에 모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하고 포인트를 받으며 일정 정도까지 쌓아야만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부터 아마존까지 기프트 카드 종류는 다양하다.

장점은 가입이 쉽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기본적인 영어만 할 줄 알면 가입 후 1분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리 시간을 활용하기도 좋다.

단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효율이 좋은 설문을 하면 시간당 15달러도 벌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설문을 만나지 못하면 1시간 열심히 해봤자 5달러에 그칠 때도 있다. 열심히 한 답변에 포인트를 못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엔 좌절감이 든다.

설문조사 제출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직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온라인 용돈벌이에 비해서도 효율은 떨어지는 편. 하지만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다. 커피값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며 부담 없이 하기에 나쁘지 않다.

▷웹사이트: primeopinion.com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응자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 응자의 절인
절인과 함께하시면
응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헌터 바이든, 불법 총기소지 혐의 재판서 증언 안한다

대통령 자녀로는 첫 형사재판
트럼프 재판 맞물려 관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의 변호인 애브 로웰은 이날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판과 관련, 이날 중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헌터가 증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불리한 증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 가운데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마약 중독 사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2018년 10월 권총을 구매한 뒤 11일 동안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은 허위 신고 및 총기 불법 소지 등 2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헌터는 지난해 심리 당시 2019년 이후 마약에 손을 댄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의 변호인은 헌터가 총기를 구매할 당시 마약 중독 상태가 아니었으며, 스스로를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헌터바이든과 부인 멜리사 코언 바이든

[월밍턴(델라웨어주) 로이터-연합뉴스]

도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의 부인과 전 부인, 그의 형수였

다가 연인이 된 전 여자친구 등이 차례로 법정에서 그의 마약 중독 상황을 증언했고, 장녀인 나오미 역시 총기 소지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헌터 바이든의 재판은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론 의혹 유죄 판결 및 그에 대한 나머지 3건의 형사 기소와 맞물려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민주당은 헌터의 재판을 그에 대한 반대 증거로 제기하고 있다.

“물가상승 너무 싫어!” 실업률 상승보다 2배 더 혐오

미국인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실업률 상승보다 두배나 더 싫어하며 이 때문에 경기 부진에도 대응해야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 혐오는 구매력 감소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는 2%다. 지난 5일 상무부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 지출(PCI)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연준 목표보다 아직 높다. 이 때문에 연준은 오는 12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금리는 20여 년만의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물가가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물가상승률 2.7%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한다.

작년 4월의 4.4%보다 많이 내려온 것이고 2022년 6월의 7.1%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진단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파니 스탠체바 교수팀이 실시한 최근 조사는 미국인의 물가 상승 혐오를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 미국인은 물가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을 실업률 1%포인트 상승보다 두 배나 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로, 5%로 상승하면 실업자가 170만명 늘어나게 된다. 물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이 이 같은 실업자 양산보다 두배나 더 싫다는 얘기다.

실론 응답자들이 물가 상승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매력 잠식 우려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예산에서 돈을 쓰려면 심리적인 타격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스탄체바 교수는 “이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예산 기준이 빠듯해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은 늘 돈을 쓸 때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본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의 온 스타인슨 교수는 팬데믹 이전에 물가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는 경제 모델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생각만큼 싫어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물가 상승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타당한 이유로 물가 상승을 싫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제대로 모델링하고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 ‘본토 공격’ 승인에도 러시아 안전지대 84% 건재”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일부 타격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책적으로 러시아의 작전지역 후방 대부분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 후방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ISW는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속 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 등으로는 러시아의 기존 안전지대 중 기껏해야 16%만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ISW는 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국산 무기의 사정거리 안이면서도 미국의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없는 러시아 영토를 ‘안전



하이마스발사 모습

지대(sanctuary)로 규정했다.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여전히 금지된 탓에 러시아의 안전지대 대부분이 여전히 공격범위 밖으로 남아 있는 이유라고 ISW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공습에 사용되는 러시아의 접경지 공군기지 대다수는 보로네즈, 로스토프 등 전선에서 좀 더

떨어진 지역, 즉 여전히 러시아의 안전지대에 속해 ATACMS가 아니면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ISW는 지적했다.

또 HIMARS와 GMLRS로도 러시아 서남부의 브란스크, 쿠르스크, 벨고로드 등의 국경지대 일부만 ‘합법적 표적’이 된 것도 미국의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ISW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보면 우크라이나 공격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지 않는 러시아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의 안전지대 감소분은 16%도 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에만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 “F-16 일부 해외 기지에”…러시아 “어디든 격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게 될 F-16 전투기 상당수를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배치해 돌 방침이라고 현지 일간 키이우인디펜던트가 자유유럽방송(RFE)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르히 홀루브초우 우크라이나 공군 항공사령관은 전날 RFE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로 인도되는 모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조종사 등 병력이 훈련받는 장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홀루브초우 사령관은 “일부가 (러시아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는 우크라이나 외부의 공군기지에 보관될 것”이라며 “전투기 유지관리 과정



벨기에의 F-16 전투기를 둘러보는 젤렌스키 대통령

에서 교체를 위한 예비 기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밖의 F-16과 군사 시설이라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비행장에서 이륙해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와 미사일을 쏘고 복귀한다면 이는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목표물이 된다”며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를 격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까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일부는 올 여름 중에 전달될 전망이다.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프로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

개인지도 합니다. 연락 주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GRAND RE-OPENING

센터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곳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6월 Special Event!

원포인트 레슨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Free 30분
(본 쿠폰 지참 고객에 한하며,
1인 1쿠폰만 사용 가능)
 COUPON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 ... 마크롱, 조기총선 전격 발표

이민자 급증, 고물가 등이 표심 반영 강경우파·극우당 나란히 의석수 늘어 소속당 참패 마크롱, 의회 해산 발표 대선 3년 앞두고 극우 돌풍 차단 나서

“극우 정당들이 유럽연합(EU)의 전통적인 권력을 뒤흔들었다.”(AP통신) “유럽의회 선거가 프랑스 정부를 넘어뜨렸다.”(폴리티코) 지난 6~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바뀌게 된 유럽 정치 지형을 두고 나온 말이다. 프랑스에선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에 참패한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의 에마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다. 독일에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회민주당(SPD)에 비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약진해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유권자 3억7000만 명이 정당명부제 선거로 의원 720명을 선출한 이번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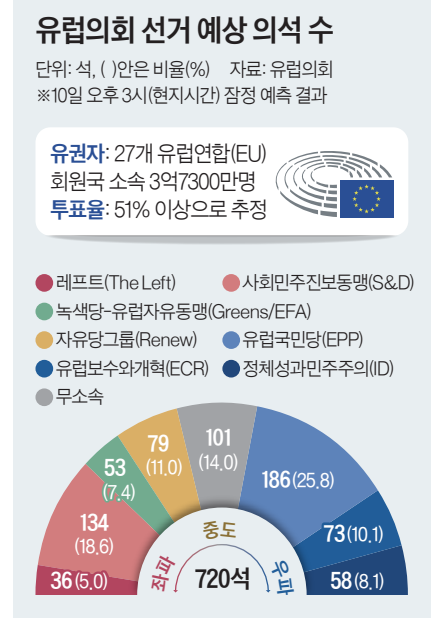
거에서 중도 우파가 1위를 사수했으나,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인구 규모가 큰 국가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 유럽의회가 이날 오전 발표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86석(25.8%)을 얻어 제1정치그룹 지위를 지켰다. 기존 의석수(705석 중 176석, 25%)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제2정치그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34석(18.6%)을 차지, 의석 비중이 현재(19.7%)보다 소폭 줄었다. 제3그룹인 중도 ‘리뉴유럽’(자유당 그룹-RE)은 현재 102석(14.5%)에서 크게 줄어든 79석(11.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친환경 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현재 71석(10.1%)에서 크게 줄어든 53석(7.4%)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강경우파 성향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은 현재 69석(9.8%)에서 73석(10.1%)으로, 극우 정치그룹 ‘정치성과민주주의’(ID)는 49석(7.0%)에서 58석(8.1%)으로 의석이 늘었다. 현 의회와 비



9일 실시된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정당이 승리하자 시민들이 의회 해산과 이에 따른 조기총선 계획을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교하면 ECR과 ID 의석 총합은 13석 증가했다. 기존 정치그룹에 속하지 않은 AfD 등 무소속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도 약진했다. 특히 프랑스에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약 31.4%의 득표율로 압승할 전망이다. RN은 정치그룹 ID의 일원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크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2위인 르네상스당은 예상 득표율 14.6%로 RN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해 결정했다”며 국회 해산을 발표했다. 이어 파리올림픽 전인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마크롱의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고위험 도박”이라며 르펜의 급부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대선을 3년 앞두고 극우 돌풍을 차단하는데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날 르펜은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총선 이후 2년 만에 다시 임기 5년의 하원의원 577명을 선출하게 됐다. 극우의 약진 요인으로는 이민자 급증

과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불만이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민족주의와 정체성에 더 집중하게 된 데다 인플레이션,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서 멀어지게 만든 전쟁의 결과 등으로 우익 정당들이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백일현 기자



일본 반도체연합, 미국 IBM과 첨단 패키징도 협력한다

생산-패키징 갖춰 반도체 부활 꿈꿔 일본 정부, 8조원 가량 보조금 약속 일본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연합체 라피더스가 미국 IBM과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2nm(나노미터·10억분의1m) 미세공정 기술에서도 협력 중인 양사가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기술 역량을 확보해 2나노 반도체를 조기에 생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IBM은 최근 일본 라피더스와 첨단 패

키징 관련 대량생산 기술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IBM은 지난 3일 자사 뉴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라피더스는 IBM으로부터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받게 되며, 양사는 이 분야에서 협력해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 공정 이후 반도체 칩을 가공하는 후(後) 공정을 일컫는다. 이번 파트너십은 기존 2나노 반도체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IBM 연구 시설에 파견된 라피더스 엔지니어들이

IBM 연구원들과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코이케 아츠오시 라피더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이 반도체 패키징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피더스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토요타, 키옥사,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텐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대기업 8곳이 출자해 만든 연합체다. 이들 기업이 총 73억엔(약 639억 5400만원)을 출자했다. 2025년까지 2나노 공정 반도체를 시험 생산하고, 2027년

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훗카이도 지토세에 공장도 짓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부터 약 1조엔(약 8조76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7년 양산” 목표를 실행하려면 총 5조엔 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놓은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원안에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라피더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양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민간 자금을 포함한 증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쉬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피더스의 2나노 양산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예외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IBM과의 패키징 협력을 두고, 국내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 분야에선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선두에 있다. 인텔도 자사의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 “TSMC에서 만든 칩도 우리가 패키징해 주겠다”며 파운드리 수주 전략으로 활용 중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첨단 패키징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대만·미국 기업 등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평가된다. 박해리 기자

한미, 워싱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트럼프 변수’ 속 기본입장 토대로 이견 본격 조율 관측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3차 협상이 10일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선 이번 협상은 12일까지 진행된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상부

터는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국은 4월 미국 하와이,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측은 1차 회의 이후에는 양국이 각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차 협상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9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

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제11차 SMA가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제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1차 SMA 때 방위비는 직전보다 13.9% 올랐으며(2021년 기준 1조1천 833억원) 그 이후에는 국방비 인상에 맞춰 분담금을 정하기로 양국은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12차 협상에 앞서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내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측과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번 협상에서는 변수로 꼽힌다. 재임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6개 가까이 올릴 것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기에 바이든 정부와 협상 타결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시간에 쫓길 경우 오히려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실라 상담관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북중 우호 상징’ 전시실도 폐쇄... 시진핑·김정은 이상기류

6년 전 회담 연 방추이다오 해변 김일성 때부터 3대 방문 흔적 지워 “시 주석 승인 없는 불가능한 일 김정은 위성 도발, 불만 노출해”

2018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다롄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이 최근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북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산책하며 담소를 나눈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棒槌島) 해변에 있던 발자국 동판을 지금은 찾을 수 없다. 대북 소식통을 통해 중앙일보가 입수한 최근 사진에 따르면 동판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색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은 흔적만 남았다.

중앙일보는 과거 동판이 설치돼 있던 사진도 입수했는데, 같은 곳을 향하는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중국 측이 동판 설치와 관련한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현지에서는 두 정상이 산책한 것을 기념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상황으로 미뤄 외교가에선 북·중 정상회담의 발자국을 지운 건 시 주석의 승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방추이다오 해변 인근 식당의 ‘7호각 전시실’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전시실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추이다오를 방문했던 당시 사진 등이 전시돼 있어 김 위원장도 방

문했다”고 말했다. 발자국 동판과 전시실 폐쇄의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변화는 북·중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동판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만남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런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을 한 달여 앞두고 다롄을 전격 방문

했다. 전용기 편으로 방중 길에 오른 김 위원장은 공식회담-환영 만찬-해변 산책-오찬으로 이어진 빽빽한 일정을 시 주석과 함께 소화했는데, 하이라이트는 해변 산책이었다.

두 정상은 통역만 대동한 채 나란히 걸으며 친분을 과시했다. 방추이다오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중국 지도자들이 정상급 외국 인사와의 회담이나 휴양을 위해 찾던 곳이다. 김일성 주석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두 정상의 ‘산책 외교’가 이곳에서 이뤄진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중국 관영 CC-TV는 두 정상의 방추이다오 해변 산책 장면을 반복해서 방영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새로운 전성기”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표현했고, 시 주석은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화답했다.

이런 상징성을 감안할 때 동판이 사라지고 전시실이 폐쇄된 것을 두고 양국 간 이상 기류가 흐르는 징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중국까지 짜집아 비판하는 담화를 내는 등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같은 날 심야에 군사경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올해가 수교 75주년을 맞는 해인데도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빽빽하다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 자오저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과 관련해 “중국 서열 3위가 방북했지만, 사실상 ‘선물’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푸틴, 이달 24년 만의 방북 가능성... 북러는 밀착 가속

북한 근로자 파견, 관광개발 등 대북제재 무시한 경험 논할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가 보도했다. 베도모스티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이르면 6월 중 이뤄질 수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직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 매체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준비되고 있으며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대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 이후론 9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후 중국(5월 15~16일), 벨라루스(5월 23~24일), 우즈베키스탄(5월 26~28일)을 잇따라 방문하며 순방외교를 하고 있다.

1년도 안 돼 북·러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는 이례적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무기, 러시아가 군사기술을 서로 제공하는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북·러 간 경제협력도 주의제가 될 전망이다. 알렉산드르 제린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러 무역 및 경제관계를

서방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과 북한 관광 개발 문제가 주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정원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북핵 대응 공동지침 만들었다

김여정 전날 “휴지줍기 일상 될 것” 오물풍선 지속, NLL 도발도 암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난 9일 재개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뼈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계속 한다면 앞으로 설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도발 수단인 오물풍선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오물풍선 카드의 ‘한계 효용’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 기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풍선에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 등을 묻혀 보내는 것은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북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NLL 인근 도발이나 무인기 띄우기, 대남 사이버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

아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남북 대치 상태가 이달 하순 당 전원 회의를 앞둔 북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소식이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한편 한·미는 10일 제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언론성명에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제를 위한 공동지침 문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로 보고,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TTX)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박현주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대선 1년전 사퇴' 예외 의결, 지방선거 공천 뒤 대선행 길 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게끔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 최고위는 이 내용이 담긴 당헌 25조2항을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1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퇴 시기를 그해 6월 지방선거 전 후로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 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에 있는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고 하지만, "이재명 맞춤형"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원내대표 경선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도 포함 당내 "여러 논의 필요" 비판 나와 여당 "특정인 위한 권력남용"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경 사유를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대선 전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란 문구를 지웠다. '상당한 사유'에 ▶대통령 권위 ▶대통령선거 일정 변동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통령 탄핵을 대비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최종

안에선 빠졌다. 그런데도 당 내부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노골적인 '이재명 맞춤형'은 삭제됐지만 사퇴 시한 연장 가능성은 그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한 3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1년 사퇴 규정은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라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나갈 때 언제쯤 권위야겠다고 계산한

상태에서 도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며 개정에 반대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인철관식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어 추진할 필요 있느냐"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고위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원 투표 20% 반영 논의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낙마한 것에 반발한 당원 2만여 명이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져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개정에 힘을 실어왔다.

내부에서도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므로 여러 논의가 더 필요하다" (6일 안규백 의원), "의장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게 돼, 정치가 개판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7일 김영진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선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독단적인 원 구성 추진과 각종 특검 남발도 모자라 당헌·당규 개정까지 하는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와 판결을 흔들겠다는 오만함"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우상호 "나는 일관되게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 반대해"

"이재명·이낙연 전대출마 모두 만류 3김시대 같은 사당화 막는 게 쇠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1999년 정치 입문 뒤 25년간의 민주당 역사를 되돌아보는 저서 『민주당 1999-2024』를 펴냈다. 우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나는 일관되게 대권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했다"며 "유력 대권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 갈등을 피할 수 없고 분당에 이르는 경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낙연 전 총리가 2020년 전당대회에 출마하려 했을 때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2년 전당대회에 나가려 했을 때도 만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1년 보궐선거 패배 뒤 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개혁그룹의 요구로 대선후보와 당 대표를 분리하는 '당정 분리'가 도입된 일을 상기했다. 우 전 위원장은 "3김 시대의 사당화를 극복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쇠신 운동의) 주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개정에 실패한 사례도 돌아봤다. 우 전 위원장은 "열성 지지층은 과감한 개혁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중도층에겐 일방적인 태도가 독선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는 선(善)이고 반대하는 이들은 악인에 가깝다는 논리로 흘러가면 오만 프레임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반추했다.

민주당 '86그룹'의 대표주자였던 우 전 위원장은 "86세대 정치인들은 정당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총론으로 보자면, 나는 그룹으로서의 86세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 이유로 "86세대 중 상당수가 선배 정치인의 계파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계열의 계파적 질서에 기여한 점이 첫 번째 과오였다고 생각한다" 등을 거론했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을 한 우 전 위원장은 2017년 원내대표, 2022년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4월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 유죄"

이재명 때리는 국민의힘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관련성 집중 부각 이수진 "못 빠져나가" 발언도 재소환

여권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별인 행태는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17차례 보고했고, 이 대표도 대북송금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할 것이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화영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역으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것"이라며 "부지사에 얽혀 놓은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전날 한

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도 이어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해석의 관건이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옳고, 그렇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을 잃는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공범들이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것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무소속 의원의 이 대표 관련 언급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며 "특히 옛(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백현동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 전 의원 언급대로라면 논리구조가 비슷한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1,110,000	\$426,000	\$58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여당 “법사위 주면 운영·과방위 포기” 제안...야권 끝내 거부

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독식
여당 “이재명 방탄용” 본회의 불참

view 192석 거야(巨野) 연대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 7당은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폭거”라고 항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압도적인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둘째)이 10일 오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개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정청래 (4선-서울 마포을)
교육위원장	김영호 (3선-서울 서대문을)
과방위원장	최민희 (재선-경기 남양주갑)
행안위원장	신정훈 (3선-전남 나주-회순)
문체위원장	전재수 (3선-부산 북갑)
농해수위원장	여기구 (3선-충남 당진)
복지위원장	박주민 (3선-서울 은평갑)
환노위원장	안호영 (3선-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토위원장	맹성규 (3선-인천 남동갑)
운영위원장	박찬대 (3선-인천 연수갑)
예결위원장	박정 (3선-경기 파주을)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예고된 개의 시 각보다 4시간 늦은 오후 9시에 열렸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우 의장이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8시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협상안을 전달했으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한꺼번에 상정했다. 투표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11개 상임위원장 이름을 모두 적어내는 연기(連記)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2020년엔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이후 열흘이 지나야야 일차적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우 의장 선출 닷새 만에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밀어붙였다. 4년 전과 달리 여야 의원 간 찬반 토론도 없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소관 사무를 들여다보는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 건 현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목요일(13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4년 전엔 6월 29일에 17개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 제외)을 독식했는데, 그때보다 2주 이상 이른다.

야당만의 표결로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뽑혔다. 법제사법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정청래(4선)·최민희(재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두 사람은 대표적 강경파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여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

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 3선)의 선출도 동시에 완료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의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법이 모두 법사위 소관 법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민생 입법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심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과방위를 모두 가져왔으니, 이젠 특검법과 방송 3법이 빠르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과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를 가져가 방탄 국회를 만들고, 운영위 피감기관인 대통령실과 감사원을 압박해 공직사회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과방위를 가져간 데 대해서는 “친위 방송을 지키고 육성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각 상임위에 임의로 배치한 것도 성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우원식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 전원도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일방적인 국회 운영 우원식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흔들었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 장악에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지게 됐다”(민주당

수도권 의원)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공포까지 일사천리이던 여당 시절과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빈번했던 ‘야당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를 독식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도 야권의 불안 요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밀어붙였으나, 독주 프레임에 갇히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결국 민주당은 2021년 8월 1년2개월 만에 7개 상임위를 다시 국민의힘에 내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선포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오히려 유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며 “국정을 마비시켜 외려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김정재·전민구 기자

“판사 독선·오만... 탄핵해야”

당 지도부, 사법제도 개혁까지 주장
개딸, 판사 고향 거론하며 “판례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집중 공격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을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형

을 선고했다. 판사 경험도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은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지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김 의원

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더 노골적이었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당당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례기(판사+쓰레기)”라고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여기엔 “탄핵 판사 명단이 추가됐다” “친일 판사를 저주한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세의 초점은 검찰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

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을 향해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월 총선 당시 이 대표의 빠듯한 재판 일정이 문제 됐을 때 지도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검찰이 문제”라며 진정시킨 적도 있다. 총선 이후 제기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등도 다 검찰 흔들기 용이였다.

그러던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이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쌍방을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는 판단 이후 돌변했다. 한 조선의

원은 “재판부와 정치 검찰의 결탁을 제어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거세다”고 전했다.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를 공격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 이 있다. 검찰은 성 판사를 사법농단 적폐 판사로 규정한 민주당의 엄호 속에 성 판사를 사법농단 의혹에 얽어 기소했지만 2021년 무죄로 결론 났고, 그사 이 민주당은 유력 정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판사 개인을 상대로 보복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손국희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Eng/Kor) (구원행) (한국어 상담)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윤 대통령,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 찾아 '에너지 협력 외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K-실�크로드' 구상 추진 공동성명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세르다르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규모 에너지 협력 강화와 'K-실�크로드' 구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투자, 지역·국제 문제 등 전 분야에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 번영을 도모하자는 데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스, 화학, 조선, 섬유, 운송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해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의상을 입은 화동들이 준비한 환영 빵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로 가스·요소·비료 등 에너지, 플랜트 사업 확대를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차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공동성명에서 유

리나라가 발표한 최초의 대(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실�크로드는 한국이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한다.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 다지기의 성격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지속가

능발전 ▶분쟁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UN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 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아시아바트=현일훈 기자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가 청탁 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

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를 어길 경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줘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윤 대통령은 신고·반환 의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어 투표 끝에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세 번의 투표를 했는데 1~2표 차로 종결로 결론 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실무진도 종결 처리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은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넓은 만큼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야 윤 대통령의 위법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반면 종결을 찬성한 위원들은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보관하는 것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아닌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이들도 있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 수사 기관에 넘길 실의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박태인·성지원 기자

'프락치 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내정

(전 이재명 특보)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받은 유죄 판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던 정의찬 전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이 국회의장실 별정직 공무원에 내정됐다.

10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최근 정 전 특보를 공석인 의장실 5급 별정직에 내정했다고 한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각각 김민기·조오섭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의장실 인선을 거의 매듭짓고 남은 게 5급과 9급 별정직 자리를 하나씩인데, 그 중 5급 자리가 정 전 특보의 몫이라는 얘기다.

정 전 특보는 강원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기 상임대표 등과 함께 호남권의 대표적 원외의 친이재명계 인사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20년 2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전 선대위 조직본부팀

장을 맡아 활동한 뒤 지난해 8월 이 대표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아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도전장을 냈다. 발목을 잡은 건 전과였다. 그는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이던 1997년 이른바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2년 사면·복권됐다. 남종련 간부들이 전남대에서 가짜 대학생들 '경찰 프락치'로 의심해 집단 폭행하고 고문해 죽인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상해치사)였다.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그를 격격 판정했다가 전과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반발하던 정 전 특보는 이 대표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검증위원을 들어주자 "당과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정 전 특보는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반응했다. 정승윤 기자



정의찬

내리막 질주 트럭 멈춰 세운 30대

한 30대 남성이 운전자 없이 제동 장치가 풀려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는 1t 트럭에 뛰어 올라타 2차 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광주시 태전동의 한 학원가에 주차된 트럭에서 제동 장치가 풀렸다. 화물을 짐칸에 가득 실은 상태였다.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트럭은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가더니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은 채 학원 버스 쪽으로 돌진했다. 트럭 운전자가 조수석 쪽을 부여잡고 쫓아갔지만, 차량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때 보행로 쪽에 있던 이희성(30대·사진 오른쪽)씨가 과속 방지턱에서 트럭의 속도가 느려지자 곧바로 트럭에 올라탔다. 이후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씨는 트럭에 올라타다 왼쪽 발목을 골절상을 입고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이씨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올라타는 과정에 왼쪽 발목이 골절됐지만, 그 당시엔 저 차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희성씨가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서 "트럭 운전자 어른이 뒤에서 질질 끌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사고를 목격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학원 근처여서 아이들이 다칠까 아찔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추억거리가 생겼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경사로에 트럭을 주차한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서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이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시민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차량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가시 돌친 말

흔히 “후보 간 가시 돌친 설전이 벌어졌다” “가시 돌친 말들을 주고받았다”처럼 이야기 한다. 말속에 상대를 공격하는 의미나 내용이 들어 있을 때 ‘가시 돌하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시 돌친 설전’ ‘가시 돌친 말들’로 바꾸어야 한다.

‘날개 돌하다’도 마찬가지다. “제습기 등이 날개 돌힌 듯 판매되고 있다”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날개 돌친’으로 고쳐야 바르다. 상품이 인기가 있어 빠른 속도로 팔려 나갈 때 ‘날개 돌치다’와 같이 표현한다.

우리말에 ‘돌하다’란 동사는 없다. ‘돌하다’는 ‘돌다’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 ‘-히’가 붙은 꼴인데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막다’ ‘뺏다’에 ‘-히’를 붙여 피동사 ‘막히다’ ‘뺏히다’로 쓰는 것처럼 ‘돌하다’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기 쉽다. ‘돌다’는 스스로 일으키는 작용에 의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히’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없다. 피동이 되려면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가령 소름은 자신의 몸에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돌아나는 게 아니다.

‘돌치다’는 ‘돌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사 ‘-치’를 붙여 만든 단어다. ‘가시가 돌다’ ‘날개가 돌다’를 강조해 이르는 말은 ‘가시가 돌치다’ ‘날개가 돌치다’로 표현하는 게 옳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e스포츠도 스포츠일까?



우훈식
경제부 기자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을 때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는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통적인 스포츠가 신체 활동 위주라면, e스포츠는 주로 정신적 활동 및 디지털 기술에 의존한다. 이 기준은 스포츠의 정의를 확장하는 논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또 기술적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와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인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기업이 대회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 밸런스와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회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서버가 닫힌다면 선수들은 당장 승부를 가릴 방법이 없다. 대중적 인기를 고려해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 대회마다 종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지속성 측면에서 단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게임의 스포츠화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유사성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e스포츠도 전통적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중심이다. 선수들은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연마하며 승리를 목표로 경쟁에 나선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종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e스포츠 선수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며 때론 신체 훈련도 병행한다.

스포츠에는 팬이 빠질 수 없다. e스포츠도 세계적으로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e스포츠 대회는 대회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 등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프로 팀, 리그, 국제 대회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회 룰 또한 엄격하다.

스포츠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체 활동과 경기 규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정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다. 현대는 정신적 요소와 전략적 사고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체스, 포커 등 두뇌 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정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스포츠 기관들이 e스포츠를 공식 스포츠로 인정하는 추세다. e스포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e스포츠계의 치열한 경쟁과 팬 문화를 고려한다면, e스포츠도 현대 스포츠의 한 형태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연립광장

장미꽃 피는 6월에 일어난 일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

어느덧 6월이다. 장미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달이다.

먼저 이름에 ‘장미(Rose)’라는 말이 들어 있는 한 여성이 생각난다. 바로 어네스틴 포로우스키 로즈라는 여성 인권 운동가다. 그녀는 1869년에 ‘국민여성참정협회(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라는 단체를 창설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다.

아름다운 6월이지만 역사적으로 치열한 전투도 벌어졌던 달이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5년 6월 17일, 독립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알려진 벵커힐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 독립전쟁은 미국 13개 주가 독립을 위해 영국군과 싸운 것으로 1775년 4월 19일 시작해 8년 간이나 지속했다. 또 하나는 세계 2차대전 중이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다. 당시 연합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을 물리쳤다.

역사적으로 6월에도 많은 일이 벌어졌고 유명인들의 출생도 많았다.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기의 탄생이다. 연방의회는 1777년 6월 14일 성조기(Stars and Stripes)를 미국 국기로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6월에 출생한 대표적 인물은 프랑스의 천재 철학자이자 과학자,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다. 그의 출생일은 1623년 6월 19일이다. 독일의 유명 작곡가인 로버트 슈만이 1810년 6월 8일 태어났고, 미국의 웅변가이자 성직자인 헨리 워드 비처는 1813년 6월 23일에 출생했다. 그런가 하면 1875년 6월 6일에 태어난 독일 소설가 토마스 만과 17년 뒤인 1892년 6월 26일에 출생한 미국의 여류 소설가 펄 벅은 나란히 노벨상을 받았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복지 사업가로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가 출생한 것은 1880년 6월 27일이다.

켈러 여사는 출생 후 두 살이 될 때까지 심하게 병을 앓았다. 그로 인해 결국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켈러 여사는 7살 때 앤 설리번이라는 은인을 만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설리번은 실명 위기까지 갔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켈러 여사에게 글씨 쓰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후 켈러 여사는 활발한 저술 활동과 사회 활동을 벌였으며 그 공로로 많은 상을 받았다.

6월에는 건설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태어났다. 조지 고틀즈라는 미 육군 공병장교다. 1858년 6월 29일 태어난 고틀즈는 독특한 공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파나마 운하의 완성을 이끈 인물이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틀즈 중령을 파나마 운하 건설 책임자로 임명했다. 고틀즈는 1914년에 군에서 전역한 후 파나마지역 주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장미’라는 단어가 들어간 잡지가 있었다. 1921년 창간호를 낸 한국 최초의 시 전문 동인지 ‘장미촌(薔薇村)’이다. 하지만 낭만주의를 표방했던 장미촌은 아쉽게도 그해 5월 창간호를 끝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쇼핑신이 강림하는 6월엔 핫딜!

신나는 6월의 핫딜세일

HOTDEAL BIG SALE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본체+뚜껑+전골팬+구이팬+버너받침대+기름받이+가방

캠핑 전문 유튜버들의 최애 아이템, 야외/ 집안 어디서나!
지라프 구이바다 3in1 가스그릴

샤브샤브, 바베큐, 전골요리를 손쉽게! ~~\$190~~ **\$14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편안함으로 골프 경험 업그레이드!

완벽한 핏과 지형에 대한 우수한 그립력과 안정성을 제공
에코 BIOM 프리미엄 여성 골프화

G5 BOA 클로저 시스템 US SIZE 5-9.5까지 ~~\$199.99~~ **\$16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20분후 체감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위장건강 110년 노하우

위염, 역류성식도염, 소화장애, 위통, 속쓰림, 더부룩함까지
속 편한 가벼운 일상 **유비무환 순환**

84g (3g x 7포4박스) 하루 2포 복용 ~~\$69~~ **\$6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개선 경량 파우더로 숨쉬듯 편안하게

풍부한 레드에너지의 영양감이 속부터 차올라 광채 피부 완성!
티르티르 마스크 핏 레드 쿠션

72시간 지속되는 품위 광채 커버 밀착 윤기 ~~\$26~~ **\$23**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돌외잎주정추출분말 함유

꼼꼼하게 엄선한 부원료 8종

언제 어디서나 1포 간편 섭취

체지방 감소 핵심 원료인 돌외잎 주정추출분말 450mg 함유

다양한 비타민군과 필요 영양소에 집중한 원할 대사관리 원료
이지픽스 오늘버닝 다이어트 보조제

2개 구입시 핫딜! ~~\$55~~ **\$39.90**



프리미엄 리모콘 비데
7900 Elongated Bidet

플스테인리스 노즐 + 자동무브 세정으로 업그레이드된 위생!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리모콘과 사이드 키보드를 통한 2중 컨트롤, 한국산 대형 비데

탱크리스, 마사지 및 자동 세정, 5단계 수압, 시트크랙 방지
리빙스타 비데 프리미엄 리모콘형

에너지 세이브 절전형 비데 ~~\$249.99~~ **\$249.99**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소매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탑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버스투어
독립기념일 특선
 happy 4th OF July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대장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10박11일 \$2990+항공	대장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대장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대장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대장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대장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대장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대장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대장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대장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대장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대장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장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대장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대장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대장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대장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대장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대장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대장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대장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대장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장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대장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대장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대장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대장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대장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11일 \$2990+항공	대장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대장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시내산) \$3980+항공	대장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대장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대장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대장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대장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대장

7월 4일 출발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7월 4일 출발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699

7월 4일 출발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3박 4일 \$950

7월 4일 출발
노아의 방주
 3박 4일 \$950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3박 4일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 10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보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보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보검진) 남/여 \$460

DANIEL
 성극 **다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미동부 뉴욕·천성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라츠버그/뉴욕
 매주 월요일 5박 6일 \$1350
 대행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서부관광 **미서부**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산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4일 \$89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일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시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June 11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임종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학생들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 고심중

일부 대학 SAT/ACT복귀하나

일부 아이비리그와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몇몇 대학들이 SAT/ACT로 대표되는 표준시험 성적을 다시 대입 필수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표준 시험이 없어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그래도 원래 취지가 있었기에 복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이다.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표준 시험 필수로의 복귀가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들이 SAT점수를 참고로만 사용했기에 상당수의 학생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다트머스 등 필수로 정책 전환 대다수 대학 선택 유지 고수중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표준 시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에서 시험점수 '선택(option)' 정책을 시행했다. 일부에서는 지원서에 SAT 또는 ACT 점수를 기재해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MIT는 향후 입학 사정에서 SAT 및 ACT 시험 필수 정책을 복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던 것은 징후가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2024년 초 아이비리그 대학들인 뉴햄프셔의 다트머스, 로드 아일랜드의 브라운 대학과 텍사스의 명문인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등이 추가됐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 코네티컷의 예일도 선택 정책을 폐지했지만 지원자는 ACT/SAT 점수 대신 AP/IB시험 점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MIT관계자는 "자체 연구에 따르면 표준 시험은 모든 지원자의 학업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며, MIT 입학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울 수 있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학생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필수 정책이 선택보다 더 공평하고 투명

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표준 시험 점수는 이제까지 입학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제 다시 아이비리그 등 입학 경쟁이 심한 대학에서 필수가 된 것이다.

반면 비영리 단체인 전국공정개방시험센터(National Center for Fair and Open Testing)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4년제 대학 중 80% 이상이 SAT 및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거나 2025년 가을 학기에 제출할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표준 시험 요건 복원 이유
표준시험 필수로 복귀하게 된 대학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내년인 2025년 가을 학기부터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MIT와 비슷했다. 즉, 시험 점수는 고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공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 컨설턴트는 "대학 입장에서 표준시험 점수는 학생들의 아카데미한 모습을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평준화된 요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 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표준시험 점수를 제출했다면 입학에 유리했을텐데도 (선택이기에)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 학생들의 점수는



미국 대학입시에서 SAT/ACT시험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관망중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시험도 바뀌면서 또 다른 변화가 전망된다. [Open AI 생성]

그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고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고교 학생의 평균 표준 시험 점수를 고려할 때 지원 학생의 점수가 눈에 띄지 않거나,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해당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선택 사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필수로의 복귀가 입학 절차에 더 많은 투명성을 가져다 준다고 일부 입학 전문가들은 말한다.

브라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선택 정책은 대학 지원 절차의 또 다른 요소가 되어 혼란과 오해를 일으켰다"며 "표준 시험을 필수로 하는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가족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표준 시험은 전체 입학 심사의 많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선택 정책의 효과

전문가들은 SAT/ACT 결과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원자의 경우 선택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덜고 활동, 학업 및 대학 지원 에세이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의 경우 잠재적으로 대학에 어필하는 지원서의 다른 측면과 일치하는 매우 강력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자 그룹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법이었다.

선택 정책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원서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많은 대학에서 그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그룹에서 지원자가 늘어났다. 일반적인 경향은 장벽을 제거하면서 더 많은 학생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으로 돌아가면 지원자들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희 기자
▶ 2면 'SAT/ACT'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화려하고 신비한 오로라, 과학자에겐 감시의 대상

“21년 만에 강력한 태양폭풍이 지구를 덮쳤습니다. 미국 중위도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목격됐으며 통신, 전력시설의 장애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뉴스다. 같은 날 우주물체 감시 네트워크인 ‘아울넷’(OWL-Net)에도 오로라가 검출됐다. 13일 신문기사는 이렇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천문연구원 아울넷 4호기에 오로라가 포착됐고 몽골 1호기와 보현산천문대 5호기에도 잡혔다.” 4호기 전면 카메라에 담긴 붉은빛은 초저녁 하늘의 반을 덮었다가 새벽 지평선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춤을 췄다. 우리 눈에 태양은 황백색으로 눈부신데, 자외선과 X선의 눈에는 그 거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번쩍, 하고 폭발이 일어나 지구보다 더 큰 불기둥이 솟구치는가 하면 그 플라즈마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간다. 자기장에 갇혀있던 고에너지 입자들이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대규모 태양폭풍, 즉 코로나질량방출(CME)이 그것이다. 저에너지 입자의 ‘바람’, 즉 태양풍 또한 끝없이 흘러나온다.

지구는 자기장 가진 거대 자석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는 거대한 자석인데, 그 자석이 만든 자기장에 태양풍이 쿵, 부딪혀 태양 쪽에 활요의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 안쪽은 자기장이 태양풍에 눌러 붙어 탄탄한 방패가 되며,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처럼 긴 꼬리를 펼친다. 이게 지구 자기권의 큰 그림이다. 태양 쪽 자기권을 북송아 반돛막이라 치자. 지구가 북송아싸라면 자기권 끝결질은 그 10배 거리에 있지만, 반대쪽 꼬리는 지구 지

오로라 현상 만드는 태양폭풍 단전 부르고 위성 고장 낼 수도 자기권 없는 달·화성은 무방비

름의 수백 배다. 그 꼭지와 배꼽, 즉 음쪽 팬 곳이 자극(磁極)이다. 이 꼭지(지자기 북극)와 배꼽(남극)이 문제다. 태양풍과 태양폭풍(CME)에 취약한 급소이기 때문이다. 지구 바깥 대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는 폭풍 입자와 만나 화려한 빛을 낸다. 이게 오로라다.

오로라는 폭풍 입자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꼭지와 배꼽 주변에 나타난다. 오로라를 지구 밖에서 내려다보면 도넛 모양인데, 그 폭이 위도로 10도, 거리로는 약 1000km다. 그러다가 폭풍이 거세지면 도넛이 팽창하며 윗에는 더 강력해져 멕시코와 캐나다 지역, 우루과이와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보였다. 역대급 폭풍 입자는 천문연구원이 띄운 ‘도요셋’과 차세대소형위성 2호에 실은 ‘레오도스’(LEO-DOS)에 잡혔다. 도요셋은 전리권의 급격한 변화와 자기장을 따라 들어온 오로라 입자를 관측했으며, 레오도스는 우주방사선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검출했다. 당장 초대형 폭풍이 몰아치면 도시 전체에 전기가 끊길 수 있다. 게다가 인공위성에 오류가 나거나 불능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 폭풍은 전리권을 뒤흔들며 차량과 선박·비행체의 항법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미 해군연구소(NRL)와 미 공군연구소(AFRL)에서 태양을 연구하는 것은 군 작전에 끼치는 영향이 심각해서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발했다가 얄전해지는데 극성을 부릴 때는 하루 세 번, 조용할 때는



지난 2020년 발사된 유럽우주국(ESA)의 태양탐사선 솔라오버뷰가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의 그래픽 이미지. 태양의 코로나와 태양풍, 태양 자기장을 관찰·연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닷새에 한 번꼴로 코로나 질량방출이 터진다.

우주선(宇宙線·Cosmic Rays)은 광속에 가까운 고에너지 입자로, 90%가 양성자이며, 나머지 9%는 헬륨 핵, 1%는 리튬과 더 무거운 원소다. 우주선은 태양과 우리 은하의 별들, 먼 은하, 즉 거대 블랙홀을 품은 활동성 은하핵에서 오지만, 대부분은 별이 장렬하게 일생을 마치는 초신성 폭발 때 나온다. 그 에너지는 최대 10의 21승 전자볼트(eV)다. 사람이 만든 최대 입자가속기 에너지가 10의 12승 eV대에 머무르는 걸 생각하면 10억 배나 된다! 에너지가

클수록 지구까지 오는 확률은 낮아 10의 16 eV보다 센 것은 매년 1㎡에 1개가 지나갈 뿐이다. 태양폭풍은 기껏 10의 10승 eV지만, 입자 수가 많아 더 위험하다.

천문원, NASA 태양풍 연구에 참여

태양폭풍이 달과 화성을 강타한다면? 이 두 천체에는 자기권이 없어 폭풍 입자에 무방비 상태다. 40억 년 전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기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막이 사라져 입자 폭격에 맥을 못 춘다. 기지와 우주복과 탐사차를 설계하려면 과학자들이 제공

하는 데이터를 파봐야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달과 화성 표면·궤도에서 태양 활동을 감시하고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달에서 화성까지’(M2M) 프로젝트의 63개 목표 가운데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9월 말, NASA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코덱스’(CODEX)라는 태양 망원경을 올린다. 코덱스는 태양풍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속도가 붙는지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천문연구원은 내년 말에는 누리호에 로키츠(ROKITS)라는 카메라를 실어 올린다. 로키츠는 3개의 눈으로 오로라를 찍어 CME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줄 거라고 한다. M2M에 맡을 담긴 셈이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를 발표했다. 그들은 직업과 조직 만족도, 추천 의사를 물었다. NASA는 이 조사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2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같은 정보기관이 공동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NASA 직원들은 자기 일을 평생의 업이자 역사를 바꾸는 기회로 여긴다. 2주 전, 세상을 뜨겁게 달군 그 폭발 지역이 다시 NASA의 태양우주망원경(SDO)에 잡혔다. 태양은 27일에 한 번 자전하는데, 지구에서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것이다. 천문연구원 SDO 데이터센터의 대형 화면에도 섬광이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며칠 안에 전과장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점친다. 오로라는 덩이다!

문준규

한국천문연구원·우주탐사그룹장

▶ 1번 ‘SAT/ACT’에서 이어집니다

일부 학생에게는 냉각 효과가 있어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어떤 학생은 평균 점수를 보고 아예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은 선택 정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부 발생했다고 말한다. 선택 정책은 학생들에게 유익해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더 많은 지원자를 받아 수업도 풍족했다. 심지어는 1만 5000명이나 2만명, 3만명이 더 지원했다. 그래서 선택 정책을 유지한다면 대학들은 많은 숫자의 지원자를 제대로 평가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입학 요건 변경 찾는 방법

몇몇 학교가 점수 필수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숫자의 대학은 영구적으로 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UC처럼 완전히 제외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선택이나 필수 정책에 지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항상 방법은 같다. 고교 커리큘럼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자신만의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목록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입학 요건을 9개월에서 18개월 전에 미리 발표한다.

이제 고교 11학년들은 대학의 입학 요건을 확인하고 1년 내내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곳의 입학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택 대학에 점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한 고교에서 공부해 GPA나 학년 랭킹이 좋지 않은 학생이 선택 정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략적 실수’다. 또 지원자들은 자신의 점수가 관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사이에서 ‘중간 50%(25~75번째 백분위수 범위)’ 내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수가 50% 중반 범위에 속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지원자가 고교 내신 성적에 비해 표준 시험을 정말 잘 본다면, 해당 학생이 선택 정책 학교에 지원할 때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 디지털 SAT 준비

한인 학생들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름방학을 맞아 8주짜리 디지털SAT시험 준비반을 찾고 있다. 팬데믹으로 SAT/ACT시험 형태가 대면시험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또 SAT/ACT시험 성적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 A1칼리지프렘의 새라 박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대입 전문가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별력을 알 수 없는 입학 사정 작업이 이뤄져 실력 있는 똑똑한 학생이 대입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보스턴 수변 원장도 비슷한 견해다. 그래서 앞으로 SAT/ACT 포함 정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연습이 어려워졌다. 온라인 특성상 화면의 한계를 고려해 지문 등이 짧아져 시험은 실제로는 쉬워졌지만 연습이 부족해 당황하면 시험을 망칠 수 있다. 둘째, 속임수가 어려워졌다. SAT의 경우가 가까운 시기에 출제됐던 시험문제 일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미리 편법으로 입수해 공정한 시험을 치는 등 문제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초반에 적절한 점수를 못받으면 후반엔 문제가 쉬워져서 1600점 만점에서 1300점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팀**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팀, 임대주택 관리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각국 언어에 스며드는 영어, 어디까지 관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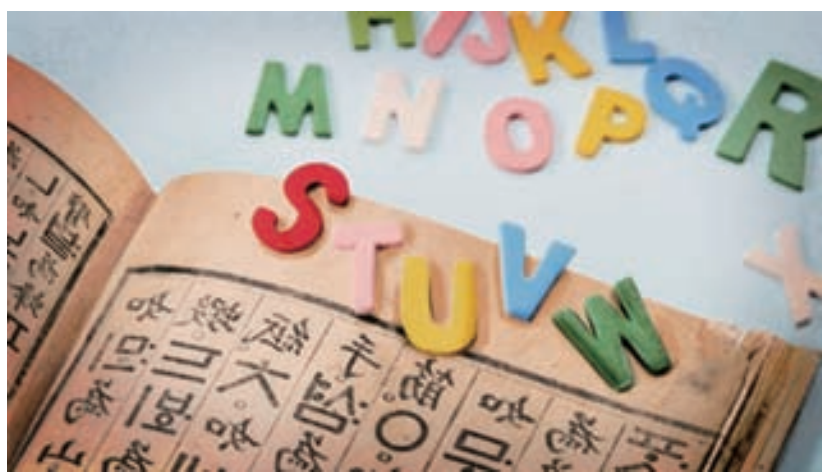
김상현의 과학 산책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매우 다르다. 이 두 언어에 공통점이 있다면 일상 회화에 영어나 영어에 기반을 둔 외래어들이 느리지만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혹은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의 언어, 문화, 심지어 정체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래어 유입은 단지 언어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달 150개의 새 단어가 프랑스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대부분은 새로운 개념을 담은 신조어들로 사회적 개념(antisexisme: 반성차별주의를 뜻하는 antisexism에서 유래), 생태학적 개념(ecoanxiété: 생태불안을 뜻하는 ecoanxiety에서 유래), 외국 음식(poké: 포케), 인터넷과 신기술(metaverse: 메타버스) 등과 관련이 있다. 그중 몇몇은 'stalker'(스토커)처럼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젊은이들은 대화하면서 'crush'(찹사탕), 'troll'(트롤), 'hater'(혐오자), 'spoiler'(스포일러) 같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따르면 현재 프랑스어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등가 표현이 없는 외래어를 차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외래어 수록은 곧 이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표현을 제시하는 기회를 준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외래어 중 하나인 'skatepark'는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planchodrome'(스케이트보드 공원) 또는 'parc à planches'(보드 공원)이 사전적 정의로 제시된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외국



일상 대화에서 영어 단어 급증 “문화 상실” vs “언어 발전일 뿐” 불어 보호 위한 ‘투봉법’ 있지만 언어·업무 환경 급변으로 고민

어 및 시류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전문가들은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가 약 40%에 이른다며 추산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눈에 띈다. 케이팝 가사와 미디어,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이르기까지 영어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최근 언어학자들은 한국어 보존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특히 에어컨이나 아파트 같은 ‘콩글리시’ 양산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물론 한국어 단어들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김치’와 ‘비빔밥’은 외래어로서 프랑스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2021년에는 ‘한류’, ‘K-드라마’, ‘만화’ 등 한국어 어원을 지닌 26개의 새 단어가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문화 상실, 나아가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은 한글 창제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강제로 일본어를 쓰던 역사가 있기에 그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

이러한 풍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프랑스의 ‘투봉(Toubon)법’에서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딴 이 법은 프랑스 언어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통과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다.

투봉법에 따르면 프랑스는 교육, 노동, 교역, 행정에 있어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인들의 일상에서 평등 및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특히 외국 시장과 자료에 대한 프랑스어 자막 및 더빙에도 적용된다. 또한 프랑스 광고, 상업, 교육, 미디어 등 여러 영역에서 프랑스어를 기본 언어로 지정한다. 해당 용어에 대응하는 프랑스어 표현

을 병기한다면 외국어 표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비단 프랑스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퀘벡 주의 경우 역사적으로 훨씬 치열한 싸움을 겪어 왔다. 퀘벡인들은 ‘weekend’, ‘shopping’, ‘chip’, ‘podcast’ 같은 일상적인 영어단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단어를 고안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프랑스어를 보존할 필요를 느꼈고 몇 년 전에는 이민자들에게 이민 6개월 후부터는 주 관공서에서 오로지 프랑스어로만 의사소통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전국의 언어 사용 실태를 개관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법률 체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프랑스 내에서 세대 및 사회 계층 간에 두드러지게 발생한 언어적 분열 현상을 확실하게 회피해 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례로 신생기업들은 회사 안팎에서 ‘asap’(최대한 빨리), ‘afterword’(끝맺음말), ‘call’(요청), ‘burn-out’(번아웃) 같은 영어 표현을 흔하게 사용하며, 이런 추세는 거의 불가피한 수준이다. 외부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불필요하고 허세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이런 표현들은 그저 일상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투봉법 반포 이래로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언어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프랑스 사회와 업무 환경 또한 변화했다. 이를 근거로 혹자는 투봉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언어 보존과 실생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다.

에바 존 한국 프랑스학교 교사

가르칠 수 없는 것

매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하는 말이 있다. “그동안 많은 학생을 만나봤지만, 이번 수강생들은 특별했어요. 항상 호기심으로 수업에 참여했지요. 따뜻하면서도, 예리했어요. 좋은 제자를 만나 행복했습니다.”

박수와 탄성이 잦아질 때쯤, 다음 대사를 이어간다. “참고로, 강의 평가가 시작되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개는 야유 섞인 웃음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실은, 농담을 빌린 나의 진심이다. 부족한 나의 말을 경청하고, 깨달아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해진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이 어려운 일이, 이번에도 겨우 성공했구나.



한국의 교육은 위기다. 과열된 사교육은 군비 경쟁처럼 치킨게임 중이다. 개인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의 계층을 공고화한다. 모두에게 명백하지만, 누구에게도 대안은 없다. 외부의 도전은 어떠한가. 기술 전쟁에는 항복의 선택지조차 모호하다. 기초과학의 격차는 비대칭 전력이다.

1970년대 프랑스에도 교육의 위기가 있었다. 미소 강국의 경쟁은 프랑스를 후진 주자로 밀어내고 있었다. 이념의 대립은 교육에 혼란을 가중했다. 이때, 수학자 장 르레이(1906~98)는 목소리를 낸다. 허약해진 과학 교육은 천연 자원의 멸절만큼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강조한다. 과학은 학생 자신이 이해하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발달의 과정을 거치듯이, 각각의 마음속에서 과학을 재발견하여야 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과학과 기술을 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탐구심을 전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플라투타르코스의 금언도 일맥상통한다. “마음은 채워질 그릇이 아니라, 불붙여야 할 불꽃이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깨닫는 바다. 과학은 가르칠 수 없다. 선생은 궁금증의 불씨를 심을 뿐이다. 열린 마음들이 스스로 반짝일 때, 과학은 다시 태어난다.

고등과학원 수석부 교수

‘배설물’ 표현은 신중하게

네이티브 잉글리시

최근 북한이 한국어로 폐전선, 거름, 폐지, 담배꽂초 등 쓰레기와 배설물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날렸을 때 전 세계 언론사 뉴스룸에서는 표현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오물에 포함된 ‘쓰레기’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미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trash’로, 영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rubbish’라고 표기하면 됐다. 문제는 배설물에 대한 표현이었다. ‘배설물’을 그나마 격식있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excrement’다. 사람 배설물인 경우

‘human excrement’, 동물 배설물은 ‘excrement’ 또는 ‘feces’를 쓴다.

물론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표현은 전혀 다르다. 실제 생활에선 ‘excrement’라는 말은 거의 듣기 힘들다. 대신 보다 비격식적인 ‘poop’ 또는 ‘poo’를 흔히 접하게 된다. ‘poop’은 미국 영어에서, ‘poo’는 영국 영어에서 더 자주 쓰인다. 지난주 풍선 사건 이후 일부 해외 신문에서는 배설물을 칭하는 ‘poop’과 선전을 뜻하는 ‘propaganda’를 합친 ‘poopaganda’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배설물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shit’이다. 이 단어는 흔히 비격식적

로 쓰인다. 부정적이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욕설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shit’이 다른 욕설에 비해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해도 상황과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피해야 한다.

사실 아기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다면 일상 대화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단어가 쓰일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화장실에 관한 표현은 자주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도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어에서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또는 “I’m just popping to the bathroom.”(화장실에 잠깐 들렀어요)와 같이 화장실이라는 단어에 ‘room’이 들어가

는 ‘restroom’ 혹은 ‘bathroom’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 영국인은 “I’m just going to find the toilet.”(화장실 좀 찾아볼게요)와 같이 직접적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는 ‘toilet’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화장실을 표현하는 단어 중 WC(Water Closet)는 더 이상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종종 안내 표지판에서는 볼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용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로 ‘똥’ 정도도 해석될 수 있는데 ‘busines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반려견이 용변을 봤는지를 영어로 표현할 때 “Did he handle his business?” 등을 쓸 수 있다.

짐 볼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에디터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적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권 권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재정보조 내역서 (Financial Aid Package) 읽는 법

▶ 질문) 재정보조 내역서를 어떻게 읽나요?

학교 지원시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낸 학생이라면 합격 편지와 더불어, 아니면 한, 두 주 시간차를 두고 재정보조 내역서(financial aid package) 라는 것이 도착한다. 학교마다 그 포맷이 다르긴 하지만 재정 보조 내역서는 간단히 말해서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Cost of Attendance-COA) 은 어떠 어떠 한데 이 학생에 이러 저러한 종류의 재정 보조를 오퍼하므로 나머지 가정에서 분담해야 할 돈(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 은 얼마 이다 라는 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재정보조는 값을 필요없는 그랜트와 학교에서 학생이 일해서 벌 수 있는 work study, 그리고 졸업후 상환해야 하는 융자의 형태로 오퍼가 이루어진다.

그랜트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pell grant, 주정부에서 주기도 하는 주정부 그랜트, 학교 그랜트등 그랜트를 수여하는 주제에 따라 나뉘어 진다. 합격 통지를 받은 학교로부터 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비교해보고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조 내역서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우선 주의할 점은 학교마다 COA(Cost of Attendance), 즉 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총 비용의 정의가 틀리다는 점이다.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써놓지도 않고 재정보조액만 써놓아서 많이 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어느학교에서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제외하고 등록금과 기타 fee만 COA에 적어 놓기도 한다.

또 어느학교는 기숙사비와 식비는 포함



줄리 김
탑에듀피아 대표

하되 책값, 교통비 등은 포함 하지 않고 있다. 어느 학교는 각 비용을 세분해서 적어 놓는가 하면 어느학교는 비용이 얼마라고 total 만 적어 놓기도 한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재정보조 형태도 이런 저런 약자를 써놓아서 이것이 그랜트인지, 융자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다.

▶ 질문)재정 보조 내역서를 비교하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지 비교해 본다. Out of pocket money 혹은 net price라고 불리는 돈으로서 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학비, 각종 fee, 기숙사비, 식비, 책값, 컴퓨터 등 학용품, 교통비, 개인 용돈, 보험료 등등)에서 무상보조 (연방 그랜트, 장학금, 학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등)를 뺀 금액으로서 융자는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을 각 학교에서 어

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외부 장학금은 학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융자액수를 줄이는 학교가 있는 반면 학교 그랜트나 장학금을 줄이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랜트를 다음해에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무엇지도 알아야 한다. 일정 숫자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무엇보다도 평균 학점을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학점은 보통 2점 정도로 낮는데 무시할 것이 못되는게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학년때 학점 관리를 못해서 2학년때 무상보조 수혜 명단에서 탈락 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대입 에세이에 생각 명확히 담으려면 독서 등 통해 풍부한 어휘력 쌓아야

대학 입학 지원 에세이를 쓸 때 학생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력 부족뿐 아니라 핵심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해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저는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라고 쓴다면 “I want to help people because I like making them happy” 대신 “I aspire to impact lives positively through community service”라고 쓴다면 더 명확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핵심 단어를 찾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면 읽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글쓴이의 의도를 이해하기 좋다. 이와 같은 경우가 독해에서 나타난다.

다음 두 문장을 보자: Tim assumed that Larry was mendacious(팁은 래리가 허위라고

가정했다). Jerry was surprised to see his colleagues arrogate authorship for the article(제리는 그의 동료들이 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만일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아마도 그것은 mendacious(허위)와 arrogate(주장하다)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디지털 SAT에서 어휘력의 비중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SAT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휘력은 이러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휘가 부족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어휘력은 독해와 글쓰기 모두에서 필수적이다.

▶ 독해와 어휘력

독해와 어휘력의 연관성은 매우 깊다. 연구에 따르면 어휘 지식은 독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mendacious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AP와 SAT 및 대학입학 준비를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습관인 읽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다. 모르는 단어를 그냥 지나가며 이야기의 흐름을 짐작으로 읽는 학생들은 분석적 독해가 되질 않는다.

충분한 어휘 습득과 올바른 분석적 독서 능력을 쌓아온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치르는 PSAT, SAT, ACT는 물론 대학원 진학을 위해 치르는 MCAT, LCA, GRE 등 대학원 진학 시험까지도 남들보다 수월하게 치를

수 있으며 이런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진학 한 학교에서도 학업에 높은 성취를 보이게 될 것이다.

▶ 글쓰기와 어휘력

글쓰기와 어휘력 또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제한된 단어로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 하므로, 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풍부한 어휘력은 글을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 이는 특히 학문적인 글쓰기나 논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Cunningham과 Stanovich(1997)는 1학년 때의 어휘력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글쓰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어휘력 학습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꾸준히 사고하며 읽는 독서가 중요하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된다. 둘째, 단어장을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를 정리하고 반복하여 암기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배운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직접 사용해보는 과정에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더 확실히 익힐 수 있다.

이처럼 어휘력은 독해와 글쓰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SAT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에서도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독자적인 독서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는 것은 성공적인 학업과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새라 박 원장·SAT칼리지코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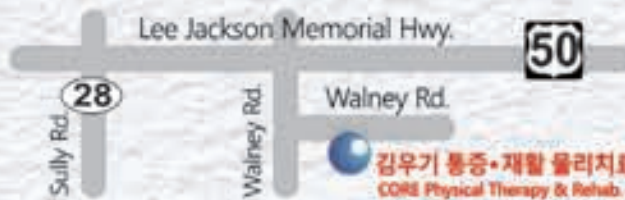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단일 대회 4연패 ... 박민지, KLPGA 역사됐다

한국 여자골프 최초 기록 달성
셀트리온 퀸즈마스터즈 4연속 우승

박민지(26)가 단일 대회 4연패를 이뤄내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역사를 새로 썼다. '선구자' 고(故) 구옥희도, 시대를 풍미한 '여왕' 박세리도 이뤄내지 못한 대기록이다.

박민지는 9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 골프장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정상을 밟았다. 지난 2021년 이후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2억1600만원이지만 주최사 셀트리온이 "박민지가 우승할 경우 특별 포상금 3억원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한 터라 이번 대회에서만 5억16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4연패 확정과 함께 눈물을 터뜨린 박민지는 "2억1600만원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1978년 출범한 KLPGA 투어 역사상 단일 대회 4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옥희와 박세리, 강수연, 김혜림과 함께 3연패를 달성했던 박민지가 이번 대회에서 새 기록을 썼다. 올 시즌 마수걸이 우승을 신고한 박민지는 갓 데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더불어 통산 19승을 달성하며 20승 고지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뒀다.

박민지는 지난 2017년 4월 삼천리 투계터 오픈에서 처음 정상을 밟았다. 데뷔 후 두 번째로 출전한 대회를 제패하며 수퍼 루키의 탄생을 알렸다. 신인왕은 입단 동기 장은수에게 내줬지만 프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0년까지 매년 1승씩 추가했고, 2021년에는 한꺼번에 6승을 휩쓸며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다.

박민지는 2022년에도 6승을 더해 2



박민지가 셀트리온 퀸즈마스터즈 4연패 달성 후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작은 사진은 2021~22·23년 우승 트로피 곁에 선 박민지. [사진 KLPGA·셀트리온 퀸즈마스터즈]

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2승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막바지 3차 신경통(얼굴 한쪽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앓기 시작하며 올 시즌 초반까지 고전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박민지는 절치

부심했다. 직전 US여자오픈 출전도 포기한 채 대회 4연패에 모든 신경을 쏟은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1라운드부터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2라운드에서도 보기 없이 버디 3개만 잡아 2타차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마지막 날엔 살짝 흔들렸다. 전반 내내 단 하나의 버디도 잡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10번 홀(파4)에서 스리 퍼트 보기가 나와 전예성과 이제영에게 10언더파 공동 선두를 내줬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곧장 반등했다. 이어진 파 311번 홀에서 7번 아이언 티샷이 그린 경사를 타고 컵 1.2m 옆으로 붙었다. 바운스 백 버디. 이어 14번 홀(파5)에서 7m짜리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승기를 잡은 박민지는 다음 3개 홀을 안정적으로 파로 마친 뒤 사실상 우승이 확정된 파 5 18번 홀에서 버디를 낚아 4연패를 자축했다. 3타 뒤진 10언더파의 최예림, 이제영, 전예성이 공동으로 준우승했다.

박민지는 "한 주가 정말 길었다. 부담감이 커 새벽 6시만 되면 잠에서 깬다"면서 "10번 홀 보기 직후 '이제 바닥을 쳤으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위기를 잘 이겨내고 우승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웃었다. 이어 "4연패는 나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올 시즌 많은 대회를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선수에게 가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의리를 지켜준 캐디 오빠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경남 양산시 에이원 골프장에서 끝난 KPGA 선수권대회에선 전가람이 17언더파 267타로 정상을 밟았다. 통산 3승째로 우승 상금은 3억 2000만원이다. **고봉준 기자**



군 복무중 노래 발표, 아미 울린 BTS 정국



"데뷔11주년, 맞잡은 손 놓지 말자"
일본 오리콘 1위 등 세계 차트 강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깜짝 발매한 노래가 글로벌 차트를 흔들었다. 정국은 지난해 말 입대했고, 현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9일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 7일 발매한 싱글 '네버렛 고(Never Let Go)'가 하루 만에 551만 1530회 재생되고,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4위에 올랐다. 같은 날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는 1위로 진입했다.

'네버렛 고'는 BTS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2024 페스타'를 위해 공개됐다. 하우스 리듬의 영어곡으로 정국이 작사·작곡 등에 참여했고, '맞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정국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처음부터 아미(팬덤 명)를 위해 작업했다. 벌써

11주년인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페스타'는 온·오프라인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유튜브로 재중계했고, 13일에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그라운드 행사가 열린다. 그라운드 행사에는 그 전날(12일) 전역하는 진이 참여해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한다.

황지영 기자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응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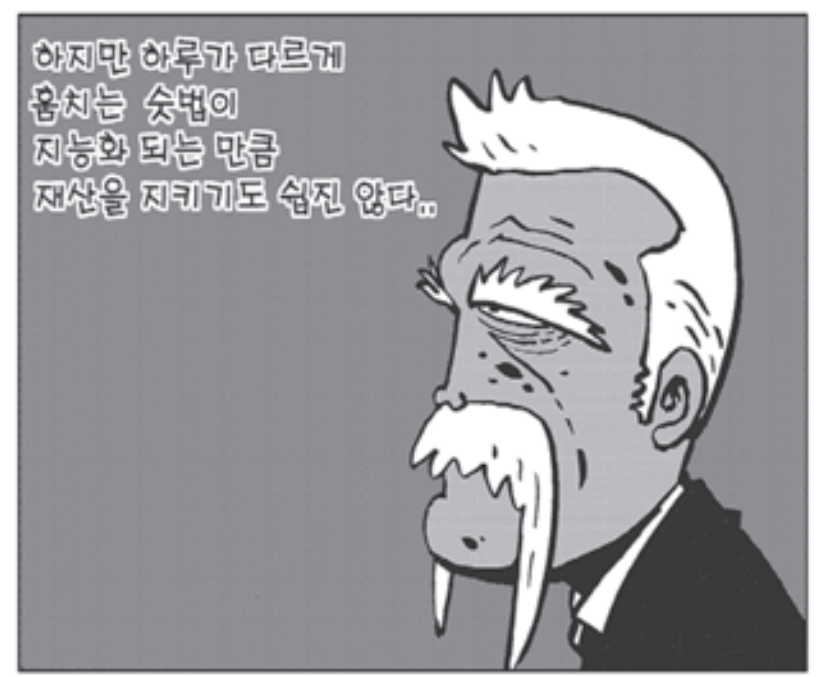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금고**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Lois: What are you doing today?
로이스: 오늘 뭐 할 거니?
Kasey: I'm going to the mall with some friends from work. And you?
케이시: 일 끝나면 친구 몇 명하고 샤픽 몰에 갈 거예요. 엄마는요?
Lois: I'm going to check in on my Uncle Louis.
로이스: 루이스 삼촌 상태가 어떨지 가봐야지.
Kasey: Is he sick?

케이시: 삼촌 아프세요?
Lois: He was laid up with a cold all last week.
로이스: 지난 주 내내 감기로 누워계셔.
Kasey: How old is Uncle Louis?
케이시: 루이스 삼촌 연세가 어떻게 돼요?
Lois: I forget but he's getting on.
로이스: 생각 안하는데 연세가 좀 드셨어.
Kasey: Give him my love and tell him I hope he feels better soon.

check in on (someone): (특히 아플 때) 상태가 어떨지 살피다

(Lois is talking to her daughter Kasey...)

(로이스가 딸 케이시와 얘기한다...)

케이시: 제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요 빨리 왜 차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해 주세요.
Lois: I will.
로이스: 그러자.
Kasey: I'll see you later.
케이시: 이따봐 엄마.

프다. 누워있다.
"He's laid up with a broken leg he got in a soccer game."
(그 사람은 축구 경기를 하다 다리 골절상을 입고 누워 있었어요.)
▶ (one) is getting on: 나이를 먹다 (getting on in years라는 표현도 씬)
"My grandfather is getting on."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나 봐.)

기억할만한 표현

▶ (one) is laid up with (something): (무엇 때문에) 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 누나는 ~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3) 비상시에 피할 수 있는 곳. 국립공원에도 있지요. 지리산 장터목 ~에서 새벽에 일어나 천왕봉(1915m)에 올라 장엄한 일출을 보았다 (5) 집안에 있는 평평한 빈터. 뜰. 국화꽃 저 버린 겨울 ~에/창 열면 하얗게 무서리 내리고/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김재호) (6)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 (8) 몹시 슬프고 분하여 나는 눈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이 난다 (12) 공경은 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음. □이□□ (14)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서 엉덩이로 바닥을 광구르는 짓. 눈길에 미끄러져 ~를 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5) 한번 굳게 고집하면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 탈리 어찌할 수 없음. 아무리 밀려도 ~로 담벼루다 (17) 뼈의 석회 성분과 칼슘이 크게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틈이 생기는 등의 증상. 골다공증. □□성□ (20)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상 (22) 보고 싶어 애대는 마음 (24)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이야기 (25) 남의 집 부녀자. □낙□ (26)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세로열쇠

(2)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3) 조선 시대에, 정이품 이상의 벼슬아치 (4) 오줌을 누는 일 (5) 곡식을 씻어 내 부엌에 된 물 (7) 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9)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그녀는 너무 울어 ~이 퐁퐁 부었다 (10) 눈이 내리거나 눈이 쌓인 경치 (11)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 (13) 오줌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 (14) 척추의 아래 끝부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뼈. 바깥쪽의 우묵한 곳에서 넓적다리뼈와 연결된다. □치□ (15)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 (16)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18)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일을 이렇게 ~로 해 놓고 퇴근한단 말미요? (19)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20) 인격화한 동식물을 주인공으로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솝 ~ (21)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빨처럼 길게 뻗어 있는, 코끼리의 엄니 (22) 줄을 늘어 매고 올라타고 놀죠. 어린이 놀이터에 있죠 (23) 사냥꾼들이 짐승을 뒤쫓을 때 밤을 지내려고 지어 놓은 임시 거처

스도쿠

		1			6	8		2
5		2	8		3	7	1	9
			2	1			6	
6							5	1
		9	4			6		
7	2	8	1	6		3		4
			9	8			2	
2				5		1	7	8
4			6				3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8	6	1	2	9	7	8	4
8	7	1	4	5	3	9	6	2
9	2	4	7	8	6	5	1	3
4	6	3	5	9	1	8	2	7
7	8	9	2	3	4	6	5	1
1	5	2	8	6	7	3	4	9
3	9	5	6	1	2	4	7	8
6	1	7	3	4	8	2	9	5
2	4	8	9	7	5	1	3	6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매매 구입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35-892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꿈을 위한 약속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Up to 40% 혜택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증정품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받기 능력 쏙속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벅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 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49%
탄수화물
DOWN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솥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